

최근 美/中/멕시코 무역투자 동향 분석과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

- ◆ '23년 멕시코, 중국을 추월해 최대 대미 수출국 지위 차지
- ◆ 중국의 對 멕시코 수출투자 급증에 미국 내 경각심 고조
- ◆ 美/中/멕시코 무역 관계 변화 속 미국 정책 향배와 우리 수출 영향에 주목할 필요

1. 조사 배경

□ 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 급감과 멕시코 수입 증가세의 상관관계를 두고 논란

- '18년이래 점증한 미국의 대중 무역 규제 속에 중국기업이 미국 시장 우회 진출의 방책으로 對 멕시코 수출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론 등 추론¹⁾
- 미국 정치권은 북미 공급망 강화 정책이 중국산 우회 수출로 역이용될 소지에 촉각²⁾

□ 해당 미국 수입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 분석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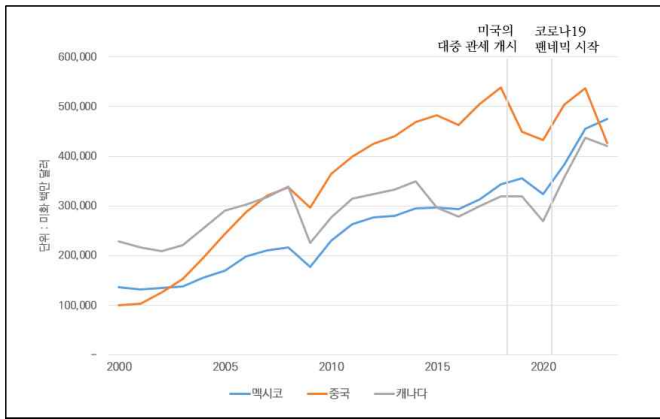
- 동 보고서는 '17~23년 동안 △미국의 멕시코-중국 수입과 △중국의 對 멕시코 투자 동향을 조사, (3) 한-멕시코 수출 경쟁 관계, 미국 정책 전망 등 시사점 제공을 목적

2. 미국의 對 멕시코 수입 동향³⁾

□ 멕시코는 작년 중국을 제치고 대미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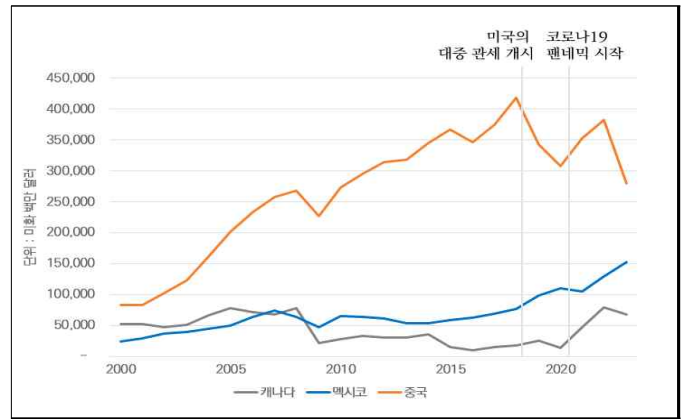
- '23년 미국의 멕시코로부터 상품 수입은 4,75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
- 멕시코는 '09년 이후 연속 대미 최대 수출국 지위를 지켰던 중국을 추월
- * '23년 미국의 대중 수입은 4,272억 달러로 전년(5,363억 달러) 대비 20% 급감
- 미국의 對 멕시코 상품 무역적자는 '23년 1,5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% 증가
- 반면, 동 기간 대중 무역적자(2,794억 달러)는 '22년 대비 27% 가까이 급감

<미국 국별 (중국/멕시코/캐나다) 수입 추이>



[자료]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(BEA)

<미국 국별 (중국/멕시코/캐나다) 무역적자 추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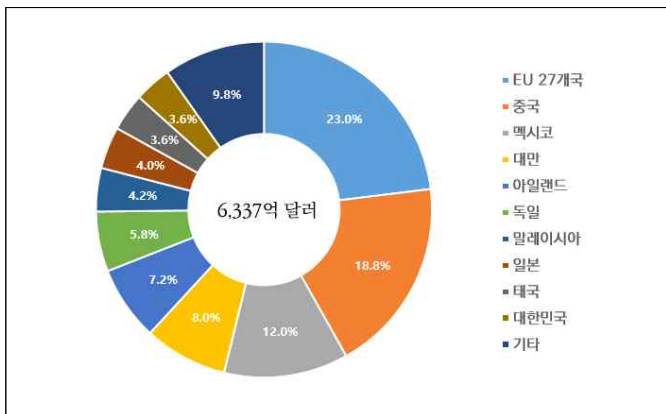
[자료]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(BEA)

□ 첨단 기술 제품* 부문에서 중국 수입 감소에 비례해 멕시코 수입 증가

* 美 상무부는 10개 첨단 기술 제품군(△바이오 △생명과학 △광학 전자 △정보통신 △전자 △유연 제조 △첨단소재 △항공우주 △국방 △핵기술)을 식별하여 수출입 통계 별도 집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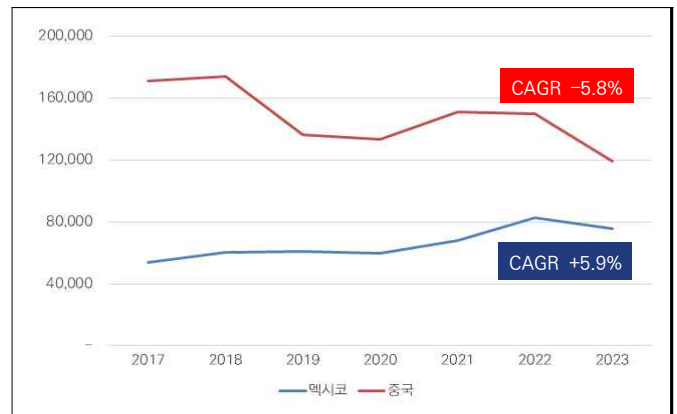
- 작년 미국의 대중 첨단 기술 제품 수입은 총 1,192억 달러이며, 이는 미중 무역 갈등 발발 전이던 '17년 대비 30% 이상 감소한 수치 (연평균 -5.8%)
- 반면, 멕시코로부터 첨단 기술 제품 수입은 작년 총 758억 달러에 달해 '17년 당시 538억 달러에서 41% 증가 (연평균 +5.9%)

<미국 첨단 기술 제품 수입 국별 현황 (2023)>



[자료]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(BEA)

<미국 첨단 기술 제품 수입 추이 (멕시코 vs. 중국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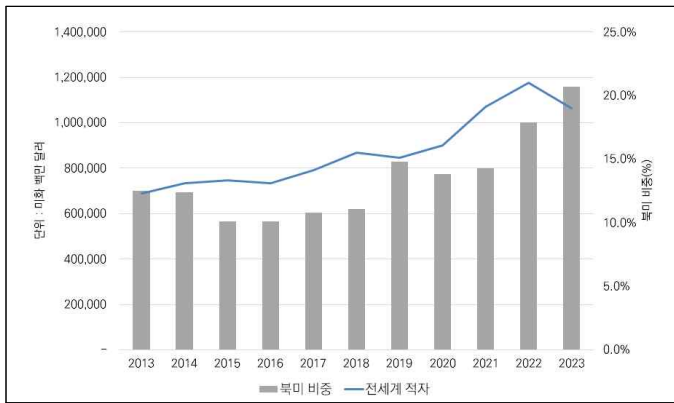


[자료]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(BEA)

□ 멕시코 수입 급증 관련 미국 내 전문가들의 상반된 해석 존재⁴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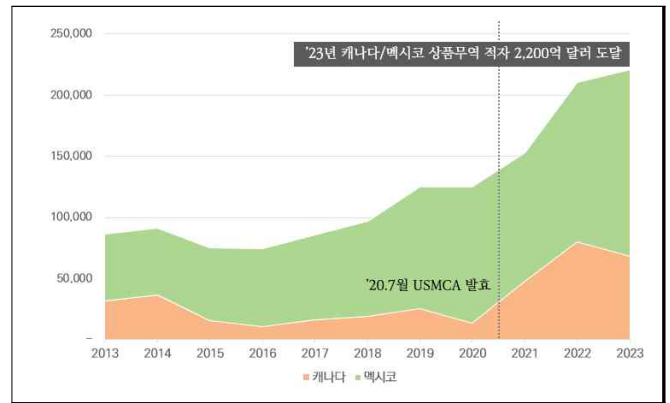
- 일각은 멕시코 수입 증가를 트럼프 정부가 체결한 USMCA의 긍정적 효과로 인식
 - USMCA 발효('20.7월) 이후 미국과 북미 인접국(캐나다·멕시코) 간 교역이 48% 이상 늘어난 1조 5,728억 달러에 도달. 이로써 미국 내 200만 개 고용 창출 추산
 - * '20~'23년 미국-캐나다 교역액 47.1%, 미국-멕시코 교역액 49.0% 성장
 - 북미 공급망을 구축하는 미국 정부의 '니어쇼어링'(Near-shoring) 전략 주요 평가
- 한편, 멕시코 및 캐나다 등과 무역적자 급증에 대한 미국 내 경각심 고조
 - '23년 미국의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상품 무역적자가 2,200억 달러에 도달. USMCA 체결 이후 '20년 대비 77% 이상 가파르게 성장

〈미국 상품 무역적자 추이 (북미 비중 %)〉



[자료]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(BEA)

〈미국의 對 멕시코/캐나다 상품 무역적자 추이〉



[자료]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(BEA)

3. 중국-멕시코 무역·투자 동향

□ 미국 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의 멕시코 우회 수출 가능성 지적⁵⁾

- 미-중 간 무역 갈등 발발 후 멕시코의 대중 상품 수입 급증세 확인
 - '22년 멕시코의 대중 상품 수입액은 1,102억 달러로 '17년 대비 48.6% 증가
 - * 동 기간('17~'22년) 멕시코의 전 세계 수입 13% 증가 / 대비 수입 11.0% 증가
 - 멕시코 전체 수입에서 중국 수입 비중이 '17년 17.6% ⇒ '22년 23.2%로 상승

-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에도 불구하고, 전 세계 수출에서 중국 수출 비중은 비교적 안정
 - 이에 중국 상품이 동남아 국가 또는 멕시코를 경유해 대미 수출되고 있다고 추정⁶⁾

〈전 세계 수출에서 중국 수출 비중 추이〉



[자료] LSEG Datastream/IMF/Schroders

〈중국의 對 멕시코 무역수지 추이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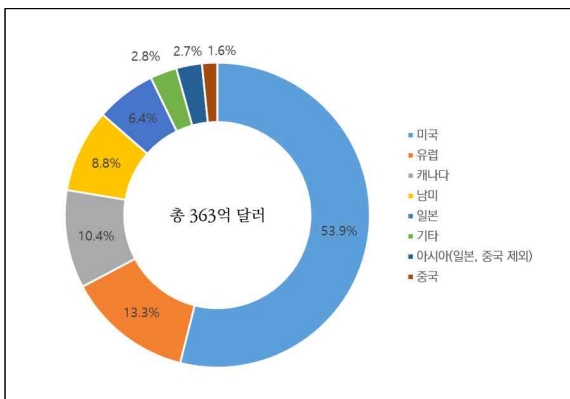


[자료] LSEG Datastream/IMF/Schroders

□ 중국기업 멕시코 투자 진출을 통한 미국 규제 회피 정황 포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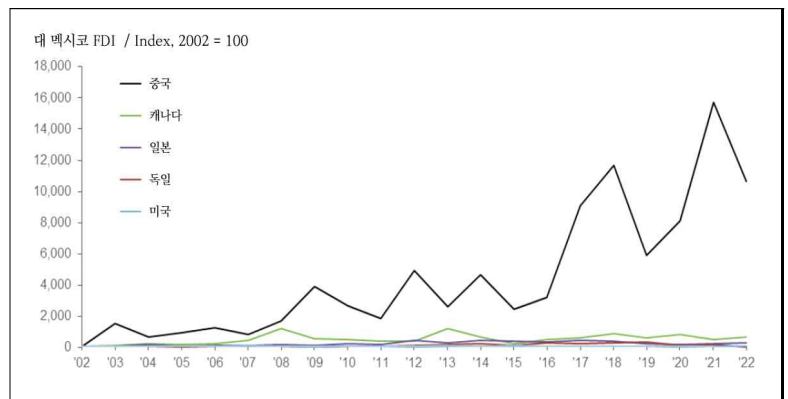
- '22년 미국은 對 멕시코 최대 투자국, 멕시코 전체 FDI의 42.6%(150억 달러)를 차지
 - 그 외 유럽(13.3%), 캐나다(10.4%), 남미국가(8.8%), 일본(5.2%), 중국(1.6%) 등⁷⁾
- 중국의 對 멕시코 직접 투자는 '1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
 - 그 배경에 (1) 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 부과, (2) 마중 관계 리스크 고조, (3) 팬데믹 이후 국제 공급망 혼란 등이 있다고 분석 (연준 댈러스 은행, '23.4월)⁸⁾

〈멕시코 직접 투자 국가별 비중 (2022년)〉



[자료] Mexican Secretariat of Econom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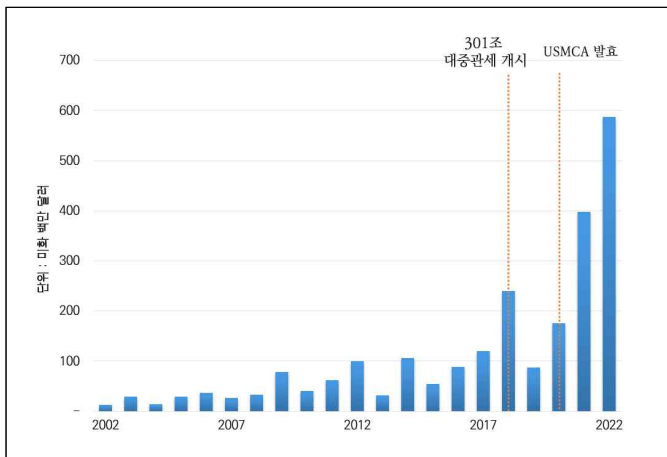
〈중국의 對 멕시코 직접 투자 증가 추이 ('02~'22년)〉



[자료]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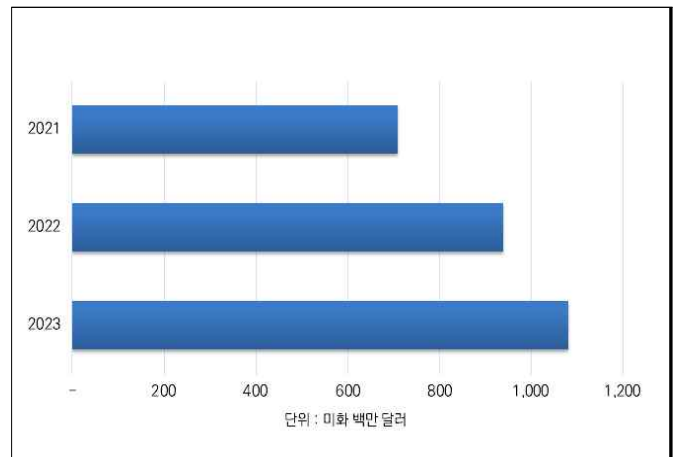
- '22년 중국의 對 멕시코 FDI는 역대 최대 5억 8,700만 달러 (전년 比 47.6%▲)
 - 대중 301조 관세 시행 이후 ('17~'22년) 중국의 對 멕시코 FDI는 4배 가까이 증가, 동 기간 매년 평균 9,300만 달러 증가 ('02~'17년 평균 7백만 달러의 13배)
 - 중국기업들이 USMCA 역내 관세 혜택을 노리고 멕시코에서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등 미국의 '프랜드쇼어링' (Friend-shoring) 정책을 역이용하고 있다고 지적⁹⁾
-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이 '23년 110억 달러에 도달해, '21년 대비 52%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고됨.¹⁰⁾ (멕시코 자동차 부품산업 협회 INA 조사)
 - 작년 33개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가 멕시코 공장 설립, 이 중 18개가 대미 수출 실적 有

〈중국의 對 멕시코 직접 투자 추이 ('02~'22년)〉



[자료] Mexican Secretariat of Economy

〈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가치〉



[자료] INA/Bloomberg

4. 시사점

□ 미국 시장에서 멕시코와 우리나라 간 수출 경쟁 구도 심화

- '23년 우리 대미 수출 상위 20개 품목(HS 코드 2자리) 기준에서, 한국-멕시코 간 수출 경합도가 77.7로 한국-중국 53.3에 비해 월등히 높게 분석

* ESI(Export Similarity Index)는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높다는 가정하에 특정 시장에서 양국 수출 경쟁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,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수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해석

- 우리 4대 대미 수출 품목인 △자동차부품(HS 87) △원자로·보일러·기계류 및 부분품(84) △전기기가부품(85) △광물성 연료광물유(27) 등에서 한-멕시코 경쟁 심화

○ 중국 제조기업의 멕시코 진출 확대에 따라, 우리 수출기업과 경쟁 관계 불가피 전망

- 중국기업의 멕시코 투자 분야(자동차부품, 배터리, 섬유, 철강, 전자기계 화학 등)가 우리 주력 업종과 유사 경향 ⇒ 향후 멕시코 대미 수출산업 구도 변화에 주의 요망

□ 中 멕시코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 여론 속 향후 미국 정책 변화에 주목 필요

① 외국인 투자 감독 규제를 위한 국제 공조 메커니즘 수립

- 엘런 재무장관은 작년 12월 멕시코 방문 시 양국 해외투자 감시 공조에 합의¹¹⁾하며, 멕시코 정부에 美 해외투자 감독위원회(CFIUS)와 유사한 투자 규제 체계 수립 요구

② 중국 전기차 (원산지 무관하게) 대상 관세율 인상

- 타이 무역 대표(USTR)는 현행 27.5%인 중국 전기차 대상 관세율 인상 시사¹²⁾

③ 중국산 제3국 우회 수출 조사 강화

- 중국 제품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를 우회해 수출되는 사례 단속 처벌¹³⁾

④ USMCA 등 자유무역협정 검토 및 수정

- 미국 정부가 '26년 예정된 USMCA 검토 후 재협상 추진 가능성 존재¹⁴⁾

* USMCA는 발효 후 6년이 되는 '26.7월에 3국 검토를 통해 존폐 또는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됨¹⁵⁾

□ 미국 정부 대중 규제책에 대한 회의론, 보편 관세 주장 논리로 연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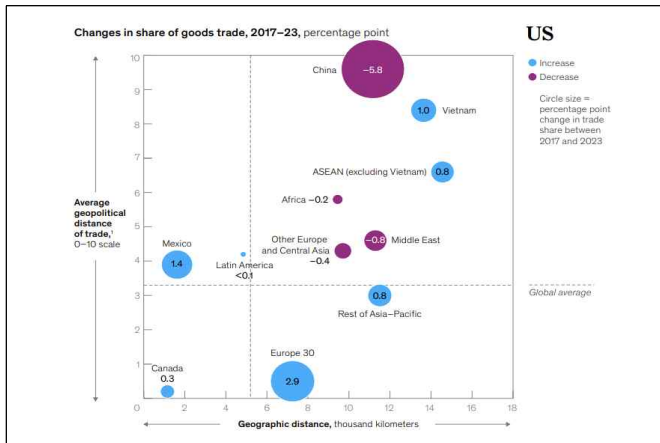
○ 미국은 '17~23년 동안 중국산 의존도를 줄이고, 수입처 다변화에 상당한 성과 달성

-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, '17~23년 동안 미국의 수입 집중도 (Import Concentration) 18% 하락, 수입처와 지리적 거리 (Geographic Distance) 3% 단축 효과 발생¹⁶⁾

- 대중 수입 대체 효과와 니어쇼어링의 최대 수혜자로 각각 베트남과 멕시코 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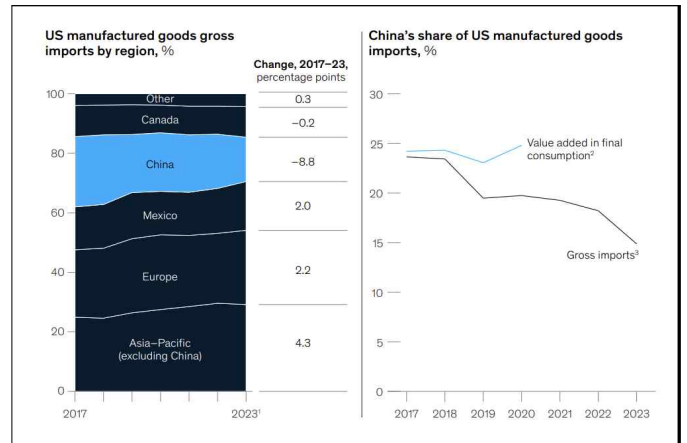
- 미국의 대중 수입 급감에도 불구하고, WTO 조사('23.11월) 결과 부가가치 기준 미국 수입에 포함된 중국산 가치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.¹⁷⁾
 - 미국 내에서 최종 소비된 상품에 내재한 중국산 부가가치(value-added)는 '17년 24%에서 '20년 25%(최근 집계)로 오히려 증가
 - 즉, 중국산 중간재가 제3국에서 단순 조립되어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이 원인

<미국 제조업 수입 다변화 동향 ('17~'23년)>



[자료] McKinsey Global Institute

<미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산 부가가치 변화>



[자료] McKinsey Global Institute

- 대중 관세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트럼프 前 대통령이 공약한 모든 국가 대상 '보편 기본 관세' (Universal Baseline Tax) 도입 주장 득세¹⁸⁾
 - 우회 수출 등 무역 편법을 방지함으로써 미국 경제, 고용, 가계 소득 증진 가능 주장¹⁹⁾
 - * CPA 분석('23.9월) : 10% 보편 관세 도입 시, GDP +3.6%, 고용 +2.1%, 가계 소득 +10.4% 효과

<CPA가 분석한 미국 보편 기본 관세 부과 경제 효과 시나리오>

경제 지표	미국 10% 관세 부과	미국 10% 관세 부과 (상대국 보복 有)
실질 GDP	3.61%	2.97%
실질 가계 소득	10.43%	11.46%
소비자 물가	3.82%	1.01%
실질 수입	-7.48%	-15.93%
실질 수출	-7.28%	-21.24%

[자료] 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(CPA)

【 참고 자료 】

- 1) “Chinese Manufacturers Get Around US Tariffs With Some Help From Mexico”, [Bloomberg \(2022.9.13.\)](#)
- 2)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, 대 USTR 서한, [2023.11.7](#)
- 3) U.S.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, December and Annual 2023, [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\(2024.2.7.\)](#)
- 4) “Trump's new NAFTA was supposed to fix the trade deficit in North America. It didn't”, [PoliticoPro \(2024.2.7.\)](#)
- 5) “Why Chinese Companies Are Investing Billions in Mexico”, [New York Times \(2023.23\)](#)
- 6) “Deglobalisation: did Mexico just eat China’s lunch?”, [Shroders \(2023.9.21.\)](#)
- 7) China Country Profile, [Mexican Secretariat of Economy \(2024.2월\)](#)
- 8) Mexico awaits ‘nearshoring’ shift as China boosts its direct investment, [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\(2023.4.14.\)](#)
- 9) Chinese Companies Build Factories In Mexico To Exploit “Friendshoring”, [CPA \(2023.2.1.\)](#)
- 10) “Elon Musk Woos Chinese Suppliers to Set Up Right Next Door to US” [Bloomberg \(2024.2.14\)](#)
- 11) “US, Mexico to cooperate on investment security screening, payments systems” [Reuters \(2023.12.7.\)](#)
- 12) “Tai to lawmakers: US plans to counter China on electric vehicles” [Politico Pro \(2024.1.17.\)](#)
- 13) The China Select Committee proposes comprehensive 2024 U.S. economic strategy for countering PRC, [Hogan Lovell \(2023.12.21.\)](#)
- 14) With elections in Mexico and the US, 2024 is a pivotal year for North American trade, [Atlantic Council \(2024.12.24.\)](#)
- 15) USMCA Sunset Clause Review and Term Extension, [CRS \(2023.9.5.\)](#)
- 16) Geopolitics and the geometry of global trade, [McKinsey Global Institute \(2024.1월\)](#)
- 17)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23, [WTO \(2023\)](#)
- 18) A New Tax on Imports and a Split From China: Trump’s 2025 Trade Agenda, [New York Times \(2023.12.26.\)](#)
- 19) Model Shows That Universal 10% Tariff Would Improve Incomes, Output And Jobs, [CPA \(2023.9.18.\)](#)

/끝/